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2시
 오후 (4부) 2시 7시30분
 금요일전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2시
 오전 (3부) 2시 7시30분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1월 27일 (제674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1533-9191 Fax. 021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1 763-9191 Fax. 0321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예배·위성·및·인터넷·생방송)



봉우칼럼

진정한 신뢰란?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다. 한 마디로 신뢰란 '믿음'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신뢰는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상처를 입어도 여전히 상대를 믿는 것이다. 다니엘서 3장에는 진정한 신뢰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단3:18)". 풀무불에서 구해주시 않을지라도 사드락과 폐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 바로 이것이 신뢰다. 나는 목회 28년 동안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수직이 많이 붙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뢰가 내게 확고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당신이 당할 고난과 수치 그리고 죽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 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라고 말씀하시고,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핏박과 조롱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가? 사방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곧 병을 고쳐주시 않을지라도, 가난에서 구해주시 않을지라도,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도, 부도 직전이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가? 태풍으로 나뭇잎이 떨어질 때 비로소 나뭇가지가 보인다. 고난 속에서 진실한 믿음, 진실한 신뢰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음에 주신 감정의 축복을 분명히 주신다.

분쟁은 공멸(共滅)의 지름길이다

목숨을 건 비행이었다. 경유지인 멕시코 시티(Mexico City) 공항을 오후 5시에 출발하려던 에어 멕시코(AM) 2524편 항공기는 무려 1시간 반을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다. 안내방송도 없었다. 그 이유는 미나티틀란(Minatitlan) 공항 상공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었다. 대서양 멕시코 만(灣) 연안에 위치한 이 공항에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비행기는 현지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가 이륙한 셈인데, 결과적으로 안착을 했기 망정이지 자칫 대형불시착 사고로 이어질 매우 위험한 비행이었다.

놓으라는 협박전화였다는 것이다. 최악의 기상조건, 납치위협, 2013년 첫 해외 집회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즉시 한국으로 전화하여 성도들의 합심기도를 부탁하셨다. 이런 와중에 잠시 나갔다가 온다면 라구나(Laguna) 선교사가 나타나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다행히 별 일없이 돌아왔지만, 납치 운운하는 상황에 일어난 일이라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목사님은 절대 개별적으로 다니지 말라고 엄명하셨다. 이번 집회는 총회장 까를로스(Juan

단다. 목사님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구덩이를 파시기로 도와드리려 하자 음성이 들리더라. "도와주시 마라. 나도 도와줄 수 없다." 결국 첫날 집회는 더욱 거세지는 비바람으로 일찍 마칠 수밖에 없었다. 착잡한 심정에 감안이 교차한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이 선교사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은 무릎을 치며 말씀하셨다. "잠으로 영몽(靈夢)이구나. 그래, 내가 무덤을 파고 있던 게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멕시코 파싸팔코스(Coatzacoalcas) 2차 집회 장면

송객들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을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트램을 내리는데 강풍으로 눈을 뜨기도 힘들었다. 마중 나온 이 선교사는 '오늘 비행기가 못 오는 줄 알았다'고 걱정스레 말했다.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합심기도가 우리를 무사히 이곳까지 오게 했다'고 말씀하셨다. 바다에 인접한 속소에 도착하니 하늘은 먹구름이 손에 닿을듯했고, 파도는 연안도로를 덮칠 듯 무섭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지난 2009년 파싸팔코스 1차 집회를 주관했던 예수(Jesus) 목사의 말에 따르면, 집회 주최 측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한국인을 납치할 계획이니 5만 불을 내

Carlos 목사님이 자신 삶의 마지막 작품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위 절제수술로 제대로 먹기조차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참 아슬아슬하게 들리지만 내면은 사실 그러지 못했다. 그 속을 들춰보니 목회자간의 시기 및 질투, 분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관련기사 4면) 이튿날도 기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오전 목회자 세미나를 은혜롭게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목사님은 눈과 가슴의 통증으로 힘들어하셨다. 비바람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목사님의 몸 상태, 납치위협 등 최악의 조건이었다. 저녁집회에 나가기 전, 이 선교사는 기도하다 잠시 잠들었는데, 한 꿈을 꾸었

있으니 꿈으로 보여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쉬게 하신 거구나. 사실 눈과 심장이 아파서 아주 힘들었거든. 나는 이곳 목회자들의 분쟁으로 야기된 결과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 모두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거다. 긴 밤을 번민으로 지새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꿈으로 나를 위로해주시는구나." 이튿날도 비는 오락가락했지만, 바람은 잠잠해졌다. 저녁이 되어서는 비도 멈추고 집회장인 파싸팔코스 야구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기도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다음 주에 계속)



칠레에서 일어나 걷고 있다



파싸팔코스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출23:20~33)

조금씩, 조금씩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 시나산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시나산에 이르자 모세는 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며 십계명과 백성에게 행할 율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헛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 년 안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출23:28~30)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에 살고 있던 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헛 족속을 내쫓아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할 것이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속전속결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물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셨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착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 땅에 원주민이 살지 않으면, 들짐승이 들끓고 땅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가서 인구가 격감하자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병을 당장 고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환경을 즉시 개선하지 않고, 당신이 힘들어 하는 가난을 지금 거두지 않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들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은 로또도 잘되더구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색하시려?’, ‘하나님의 역사는 2천 년 전에 다 끝난 거야. 아니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지극히

번성하여 기업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늦추시는 것이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아픈 과거사가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 너무 좋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낌없이 에덴동산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주고 다시 산 자녀들에게는 ‘꼭꼭’ 주시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아픔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신 겁니다. 물론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툭툭 흥해 갈라지게 하고, 주님의 옷자락 만



저도 병이 낫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들짐승의 밥이 될 조짐이 있는 자에게는 조금씩, 서서히 주십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받을 그릇이 된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즉시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은 모세만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40년 훈련을 통하여 충분히 받을만한 그릇과 절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당하다보면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죽을 만큼 주십니다.” 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성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조금씩, 조금씩 기다보면 마침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날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40여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연약에 따라 다윗이 국가를 건설하고 마침내 솔로몬에 의해서 참 평화의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왕벌, 곧 하나님의 사자를 들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 단번에, 빨리빨리 되어야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제와 인내도 필요하다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그것이 계속 되면 마침내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됨을 아십시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우습게 보이지만, 그것이 마침내 물을 끓고, 티끌이 모이면 태산이 되는 겁니다. 거목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조금씩 자라 마침내 거목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루 아침에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고 일어나니까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서서히 전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박을 바라는 대신 매일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겁니다. 며칠 만에 10kg 빼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조금씩 적게 먹는 겁니다. 공부도 단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원하는 바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도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엄습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자고할 까봐, 교만해지고 도가 넘을까봐 하나님이 이를 하라하시지 않았습니까. 혹 교만하게 되어 마귀에게 걸릴까봐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단점에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이 강건케 되었다고 감사했습니다(고후12:7~10).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완쾌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가복음 17장의 고침을 받은 아홉 명의 문둥병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길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입니까? 그건 누가복음 14장 17절에 소 다섯 겨리를 산 자와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고, 결혼기도에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 역시 장가들었다고 천국잔치에 참석 못하는 자가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을 꾸준히 마친내 더 좋은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안 하실 때도 있다

사자에 의해 피해를 본 사실이 열왕기하 1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사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조금씩, 서서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한 번 안수를 받고 안 나왔다고 불평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합을 넣어서 다시 안수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는 세계 한다고 단번에 낫고, 약하게 하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도 당장에 살리시고(요11:44),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자도 즉시 고치십니다(눅8:44). 그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더욱이 그 분의 이름 앞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

랑하시 고, 당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잘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로 너무 잘 아시거든요. 즉시 주변 독이 되고, 당장 주변 귀신의 밥이 되어 세상으로 나갈까봐 늦추시는 것입니다. 묵회 28년 동안 저는 그런 자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던 자가 갑자기 돈이 넘치자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병들었을 때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철야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봉사도 하더니 병이 낫고 나서는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린 자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우려대로 들짐승, 곧 악한 마귀에 잡혀먹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뭣 하러 감추었으며, 뭣 하러 지체하시겠습니까? 다 취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일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그러시는 것은 ‘내가

2013년 새해를 맞아 교단 목사님들의 새해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는 연재 기획코너를 마련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지난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환경 가운데로 놓으신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 삶이 어떠한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광야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셨다. 동일하게 우리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그것은 그들로 낮아져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하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셨다. 결국 가나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 이가 하나님이었더라면, 지난 1년 동안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장차도 당신의 장중에 우리를 두사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욱 낮아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총회장 목사님의 도우심, 그리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

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광주 예수중심교회가 지난해 9월 10일, 새 성전 입당을 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보답은 광주교회가 배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일에든 최선을 다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욥 33:26),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장성한 믿음이 되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나아가 온 천하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골1:6).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 예루살렘교단 28년 역사의 기초는 기도였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외치시는 총

회장 목사님!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사랑하는 교역자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은 기도뿐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일생을 닮아 기도의 일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광주교회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 및 성도들은 금년을 기도하는 해로 삼아 후회 없는 삶을 살자고 작정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하고 다짐했다. 교단의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도 새해에는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후회 없는 한해가 됩시다. 할렐루야!

광주예수중심교회 최권능 목사

기도의 일생을 살자



지난해 1월, 제 남편이 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지라 정신적으로 혼란이 왔습니다. 견잡을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가 문득 이런 매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남편을 중환자실에 6개월을 두고서도 성도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심방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벤세메스로 가는 소의 심장’이 이런 것이었을까? 이것이 사망자의 삶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소생할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담당 의사의 말을 듣고 장

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에게 선한 일이 있다면 기억해주시고, 아니면 저의 작은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 6월쯤에 남편은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고, 지금은 집에서 회복중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고난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아침에 건강하던 남편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의식 불명이 되어 6개월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지는 당사자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 역시 성도들이 아파서 병문안을 수없이 했으나 남편이 몇 개월을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바깥에 쫓겨온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살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현재 자신이 건강하다고, 나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태만하게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평소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지만, 평소 태만한 신앙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에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황금기에 향락과 죄악 가운데 빠져다가 노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생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도 좋지만 언젠가는 곤고한 날, 곧 쇠약한 날들이 오게 되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또 전도서 11장 9절에는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심판하실 줄

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삶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가려는 귀소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본능적으로 알고, 죽을 때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연어도 그 넓은 대평양을 다 돌아다니다가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혼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때가 되면 영혼의 분향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날을 위해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 매일 새롭게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분향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산예수중심교회 차명선 목사

본향에 돌아갈 준비하며 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JC Academy series

지난 1월 16일에 이어진 새해 두 번째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에서는 JC 아카데미 원장인 이시대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가 이어졌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지 못함’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주의 근원이 될지라’(창12:2)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좇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여중 하갈을 통해 이

으로 죄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하시되 그에 대한 ‘대가’는 결코 면제치 않으신다는 점입니다(창3:16-20).

긴 역사만큼이나 그 수 또한 많은 구약시대 여러 인물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주의 근원이 될지라’(창12:2)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좇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여중 하갈을 통해 이

스마엘을 얻는 실수는 했지만, 그는 깨닫고 후에는 오히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는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어 순종의 대명사인 ‘이삭’(창24-26장),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뜨거웠던 ‘야곱’(창27-36장) 역시 지나쳐서는 안 될 인물들입니다.

창세기 말미를 장식하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물론, 요셉을 보호하고 그의 목숨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창37:26-27, 창44:18-34). 동생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한 대가로 아버지로부터 얼마아마한 축복권을 얻어내는 장면을 통해(창49:8-12),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일한

분량만큼’, ‘행한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history)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천히 돌리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이면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재하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를 발판 삼아 2013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는 시편 가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기쁨의 찬송으로 흘러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며 바랍니다.

이국진 기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잠18:17)



총회장 까를로스 목사와 함께



헤수스 목사 부부와 함께

멕시코(Mexico) 코아칼코스(Coatzacoalcos) 집회를 어렵사리 마친 우리는 다음 도시 집회 일정을 위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코아칼코스의 하늘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구름을 걷어내지 않고 비를 뿌리고 있었다.

집회를 주관했던 총회장 까를로스(Juan Carlos) 목사가 찾아왔다.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그를 불러 식사라도 같이할 생각이었는데 잘 와주었다고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는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을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여기 이 도시에 도착하여 지난 2009년

1차 집회를 주관했던 헤수스(Jesus) 목사로부터 이번 집회 준비과정에 대해 듣게 되었다. 원래는 이번 2차 집회도 헤수스 목사가 준비하려했는데 갑자기 총회장 까를로스 목사가 나서더니 자신이 주관하겠다고 해서 헤수스 목사에 대해 사건건 제동을 걸더라는 것이다. 그는 총회장 까를로스 목사가 자신을 시기, 질투해서 그러는 게 분명하다며 교단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그에게 교단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 먼저 떠나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셨다.

그러나 사연은 한쪽만 들어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 총회장 까를로스 목사는 1차

집회를 통해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위를 절제하는 수술로 얼마 더 살지는 상황에서 이번 집회를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아래 목사들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자 말도 잘 듣지 않고, 자기를 생각대로 안 되니 떠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잘 먹지도 못하고 얼굴색도 흙빛인 것이 정말 건강이 좋지 않아보였다.

첫날 집회를 비로 철수한 밤, 목사님은 총회장 까를로스 목사를 생각하며 그가 참으로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다.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고 홀아비 심정은 홀아비가 안다고, 나 역시 총회장

로 아래 목사들이 저러면 정말 괴롭다. 솔직히 목사 10명 다루는 것보다 성도 천명 다루는 게 훨씬 쉽다. 안수한 목사들이 속을 썩이면 그것보다 괴로운 것이 없다. 오늘 밤, 까를로스 목사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생각하니 참 불쌍한 생각이 든다. 어디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는가? 전화해서 내일은 기상도 호전되고 많은 성도들이 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꼭 자라고 전하라.”

목사님의 말씀대로 집회는 결국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다음 도시로 떠나는 날 아침, 까를로스 목사가 일찍 찾아와 함께 식사했다. 처음보다 매우 밝은 표정이었다.

“이제 목사님의 건강도 좋아질 겁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용서하고 포용하며 묵회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더 많은 양떼를 보내주실 겁니다. 나 역시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목사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마태복을 10장 40절 말씀에 크게 깨달은 그는 집회 기간 내내 우리 일행의 식사를 제공해주었다. 그는 목사님께 깊은 사의를 표하며 다음 도시로 가는 차편도 제공해주었다.

그가 떠나 후, 헤수스 목사 부부가 찾아왔다. 목사님은 그들을 불러 앉힌 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권면하셨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먼저 교단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단에서 나가라 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단을 떠나

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반드시 교단 총회장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고 나와야 합니다. 만일 뜻에 안 맞다고 먼저 박차고 나가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나중에 더 큰 목회를 할 때 반드시 흔들려 넘어 넘지도록 보충하는 사건으로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에게도 많은 부족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교단을 등지고 나간 종들은 모두 고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배신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는 게 지혜입니다. 스승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은 거룩 유다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을 뿐입니다. 매사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셨듯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헌금도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입니다. 무를 거꾸로 심으면 심으세요. 내 뜻과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복 받는 비결입니다.”

헤수스 목사 부부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그들 부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해주셨다. 목사님은 모든 것을 아람답게 매달 지으셨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를 통해 하늘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깨닫게 하신다. 모세에게 대적했던 아론, 미리암을 비롯한 많은 자들이 어찌 되었는가? 하나님은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

건강한 2013년을 만들자

::내가 매일 기쁘게::

21세기가 시작되고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을 강대한 대표적인 신조어는 ‘웰빙’이다. 이제 ‘웰빙’은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 이밖에 ‘웰빙’ 말고도 ‘몸짱’ 열풍이나 등산 유행 등으로 볼 때 확실히 요즈음의 화두는 ‘건강’이라 할 수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요한 테마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하신다. 젊은 사람들은 늘씬한 몸매의 여성이나 근육질의 남성을 가리키며 건강하다고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신체를 단련하면 건강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하다는 말이지만, 이 말을 조금만 바

꿔보면 신체가 건강한 것이 건강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다. 정신, 곧 영혼이 함께 건강해야 한다. 신체의 단련과 더불어 맑은 정신과 깨끗한 영을 가져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 지킬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야 육체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잠4:21-23).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육신의 건강만큼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목자의 안전한 지팡이 아래에 거하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강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건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다.

결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심성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듣기에

도 좋고 보기에도 좋다.

이제 또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다. 2013년의 출발점에서 신발 끈을 다시 묶는 마음으로 모두 새로운 다짐을 한 두 개씩은 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추가하면 좋겠다. 심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도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목사님도 ‘건강한 분’이라고 소개받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건강한 목사님, 건강한 조장님, 건강한 성도님. 건강한 우리 가족! 그리고 신체뿐 만이 아니라 바르고 맑은 정신과 맑고 깨끗한 영을 가진 건강한 예수중심 교회가 되길 바란다. 목사님부터 유아부, 그리고 뱃속의 태아들까지 모두가 건강한 2013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예수중심의 모든 교인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전훈지

꿈속에 오신 예수

주님의 팔에 그리며
잠이 든 이 밤에
꿈속에 찾아오신
내 사랑 예수
엎어놓은 내 마음 단결에
포근히 누웠어요
아 그리워라
주님의 따뜻한 사랑
이 밤도 찾아주소서
기대합니다

朋友